

“재정확보, 사찰 유후토지 활용해 해결”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위한 연구 발표

“조계종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 분담금은 사실상 10년 동안 동결 상태였다. 신도 고통화 등으로 개별 사찰의 재정이 열악해진 탓이다. 종단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찰의 유후토지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벌여야 한다.”

조계종 재정 강화를 위해 개별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유후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6월 17일 조계종 안심당에서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계종의 분담금 수입은 10여 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률 인상 구조가 아니기에 앞으로 큰 차이 없이 160억원 규모에 머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이에 대해 수목장·휴양림·주말농장·친환경에너지 개발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목장은 사찰림을 갖춘 주변환경을 활용하고, 소속 신도 및 불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또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경내 분위기 구성과 자연회귀 같은 불교사상을 펼칠 수 있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꼽혔다.

국내 수목장 1위당 평균 이용금액은 100만원 선으로 30,000㎡ 부지를 갖추고 초기 1억원을 투자하면 연 평균 50위기 수 분양에 연간 5000만원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양림의 경우에는 생태체험과 청소년 포교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20,000㎡의 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사찰 재정

이 영세한 상황에서 역시 사업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 우려됐다. 이밖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업 수익에 등락이 심한 것도 단점으로 나타났다. 예상 수익은 자부담 4억원과 융자액 16억원 등을 초기 투자비용으로 투입하면 연간 4억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농장과 캠핑장의 경우 힐링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불교계가 발맞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사찰입자의 불리함과 가계소비 감소에 따른 수익 위험이 예상됐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 경쟁이 심화되면 전기 가격이 하락해 수익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사찰 측이 보조금 등을 받아 2억 8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면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연구결과에서 사업 전문성의 확보와 이익 보장 등의 일선사찰의 참여요인을 유지해야 종단 수익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가섭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 그동안의 종단 수익사업은 종단 내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과, 전문경영체제 미비, 일선 사찰의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연계망을 구축하지는 의미가 강하다”며 “종단과 전문성을 지닌 외부업체, 일선 사찰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5억 80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종단의 유후토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준직선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적신평’

16일 간담회서 총회의장단·비구니회 입장 차 보여

비구·비구니 스님이 동수로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적신평’이 가겨졌다. 중앙총회 의장단과 비구니회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중앙총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전국 비구니회 임원 및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6월 25일 개최되는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법은 1994년 이후 선거 때마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34대 집행부의 선거 공약인 만큼 여론을 수렴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준직선제 방안을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 발의했다.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스님들이 비구와 비구니를 동수로 선거

인단을 구성하는데 대해 종단 내부의 우려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좀 더 논의해 차기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구니회 측 스님들은 이번 총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스님들은 “총무원이 발의한 선거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총도들의 찬성 의견이 많다”면서 “6월 임시총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총회 의장단과 비구니회가 입장 차가 확인한 만큼 총무원 입법예고안이 198회 임시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중앙총회의원 선거로 종회 소집이 어려워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 차기 총회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최희)는 17일 총무원장 선거를 준직선제로 확대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총회의



6월 17일 종헌개정특위 제17차 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 등 종헌준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의장단 “개정안 우려 많아”

비구니회 “원안 처리해야”

실천승가회도 法개정 촉구

결단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선거가 시행되면 약 6000여 명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돼 총무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 등이 한층 더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이 동등하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

선으로 바라보는 종단 일각의 의견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남녀평등은 이미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어떤 선거에서도 성별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총도들의 참정권과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종헌준법재개정특위위원회는 6월 17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선출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임을 위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기간동안 그 지위가 상실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축소해 공식선거운동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들은 오는 6월 25일 개최되는 조계종 중앙총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염불’ 만으로도 ‘힐링’ 이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기포럼서 염불 생활화·현대적 적용 논의

현대인 스트레스 극복 가능

‘남독 독서’로도 효과 입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6월 20일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제7차 교육아사리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염불 수행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교육아사리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주요 발제로 나선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은 ‘남독 독서’와 염불과의 비교를 통해 염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소에는 학생 두 명을 선정해 한 명에게는 ‘남독 독서’를, 다른 한 명에게는 스마트폰 게임을 시키고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남독 독서’를 한 학생에게는 안정적인 알파파가 나왔으나 스마트폰 게임을 한 학생에게는 불안정한 뇌파가 측정됐다.

또한 남독을 실시할 경우 기억력 20%로

증가되며 뇌가 평소보다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정운 스님은 “소리 내어 읽는 독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계속 소리 내어 읽는 염불 역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아사리 법상 스님(포교연구실장)도 염불수행을 통한 현대인의 포교방안에 주목했다. 스님은 염불을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포교방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포교 콘텐츠로서의 염불 수행을

제안했다.

법상 스님은 “21세기 의례문화의 콘텐츠로 염불을 통한 포교는 구태의 산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일의 콘텐츠”라면서 “염불수행포교를 위해서 염불당의 설립과 수행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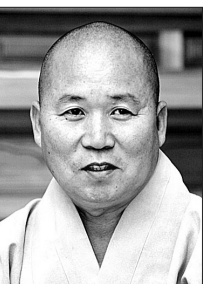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의 레위원장 인목 스님이 ‘염불의 생활화 및 현대적 적용’과 이성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 ‘생활 속에 활용하는 염불’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선묵 혜자 스님

초심호계원, 18일 선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에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6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13차 심판부를 열어 세영 스님의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장에 선묵 혜자 스님을 호선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청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사서실장, 소청심사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도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이와 더불어 직무비우로 징계에 회부된 성관 스님(해인사)에 대해 제적, 공금 전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내장사 주지 지선스님에 대해 공권징치 5년을 판결했다.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직무징치를 결정해 공권징치 5년의 징계에 회부된 전 임후사 주지 보정스님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사퇴 권고문 기독교 신앙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훈을 어지럽히는 망령된 과거의 언행과, 그의 기독교 신앙으로 편협된 인성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기에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 할 수 없고 또 이에 동조하는 유일 신성론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들을 좌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국 불교 화쟁교단의 남자로 수많은 호국 선열과 이민족의 숭고한 선구자의 영령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차체에 억조창생의 민초 앞에 문창극 총리 후보를 석고대죄하게 함으로써, 아직도 이 시대에 잔재하고 있는 문총리 후보자와 같이 식민 매국사관과 친일 매국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식자층을 발본 색원하여 더 이상 종교나 이념으로 국훈이 혼란되고 국가가 문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이 행동하여야 할 때 입니다.

우리 민족의 혼에는 안파건 단군을 위시하여 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인간의 위약함을 지켜온 많은 사상과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기독교, 무교등 많은 종교 의식이 함축되어 한민족이 공존하여 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 신성 사상으로 인격이 형성된 문 후보자와 같은 식민 사관이야말로 자기 지성에 도취된 무지한 아집의 인격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하고 분노케 할 것인가? 신성은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일 뿐이며, 유일 신성의 사상으로 신성한 국훈을 문란케 하는 종교적 포장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할 종교적 역사관입니다. 신성한 국훈은 찬연히 우리의 역사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국가재건에 초 종교적 열성을 다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모든 사회 구조를 수평화 시켰습니다. 내가 대통령요, 대통령이 또한 나 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뜻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수평화된 사회구조를 지탱해줄 윤리를 빨리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코 호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집에서 벗어나고 문총리 후보는 조속히 사퇴하기 바랍니다.

2014. 6. 14

세계 불교 종단 연합회 회장 (사) 화쟁교단 분황종 총재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홍산 현블